



서른세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그리스도인 문화기행③ BCG 독서모임]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그리스도인 문화기행" 시리즈의 시작

hp

지난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약 2달 반가량 BCG(BEE Coming Generation) 형제자매들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을 함께 읽는 독서 모임을 진행하였다. BCG 멤버들의 소회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한다.

정원만 장로

이 책이 주는 유익 3가지가 있다. 첫째, 온전한 복음의 성경적 이해를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일터(work place)를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교적 삶을 추구하고 시도하도록 도전한다. 둘째, 왕으로서 다스리면서 동시에 종으로서 섬기는 균형은 기독교적 이원론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셋째, 기존의 "선교"에 관한 개념을 성경적 근거를 통해 확장하도록 돕는다.

김동균

소돔을 멸망시키러 가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 را를 만나 점심을 먹으신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아이를 약속하신다. 그 약속은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바라던 소원에 대한 응답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이다. BCG에서 지난 6월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 백성의 선교’ 독서 모임을 시작했다. 우리는 당장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한 세계 복음화의 큰 꿈이 시작되는 놀라운 시간이었길 소망한다.

임노아

복음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다. 교회가 지역 사회를 전도 대상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 그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사회와 사람들을 총체적인 면에서 돌보고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교회 공동체적 선교로서 거시적 시선과 개인적인 전도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같은 세대의 BCG 모임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어 나와 같은 세대에서의 선교적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주선화

평범하지 않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이었다. 읽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온전한 복음은 무엇인지, 교회의 선교는 성경의 토양에 신학적 뿌리를 깊이 내리고 수행되어야 한다는 서론의 글이 인상에 남는다.

🎄 안화연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를 읽고 온 세상, 온 교회, 온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그 계획을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가시길 원하심을 깨달았다. 복음에 빛진 자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선교 대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함을 또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다스려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일, 일터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진실하게 중심으로 행하는 일 등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하고 섬겨야 하는지, 궁금했던 영역들에 대해 나에게 단비를 내려주는 시간이었다.

🎄 최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증거해야 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인의 삶을 살려면 증언해야 하는 내용을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목적 또한 잊지 말아야 증언부언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맡겨주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눈팔지 않고, 성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매일이 되길 기도하며 다짐해본다.

🎄 유재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위임령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었으며, 하나님 성품과 창조부터 열방을 향한 복음 전도의 강한 의지를 깨달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 반응하며 주님과 연합하는 매일이 되기를 소망한다.

🎄 이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할 때까지!

🎄 서동훈

선교는 사도행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창조 질서가 무너진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관을 보여주셨고, 총체적 구속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도 총체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선교가 우리의 교회에 적용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즉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는 모든 영역이 선교에 속하게 된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속한 것이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속관을 바탕으로 개인 지향적인 안녕과 번영을 추구하는 믿음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것이 삶으로 연결되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정리 및 편집 최선]

BEE 소식

- 2022년 “일상을 넘어 쏫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쏫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쏫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4).”
- 겨울방학 특강 시작! ‘그분이 지으신 마음’ 12월 19일(월), 올겨울을 말씀과 은혜 나눔으로 따뜻하게 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함께해요!!
- BEE 토요 기도모임 예배를 함께 섬길 팀원 모집!
기도 테이블 식구, 순식구 중에서 BEE를 하신 분, BEE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 토요기도 모임 참석자 중(예정 포함)에서 Singer, 인도자 모집합니다.



monotoon [모놀로그 in 바이블]

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

모놀로그 in 바이블
김수경 김수경

특히 그 말이
내내 귓전을 맴돈다

13. 니고데모
요한복음 3:1~21

산헤드린의 오후 정무들 마친 뒤
깜깜해진 시간에
내 수하의 학도들 몇과 함께
그가 묵는 곳을 찾아갔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비약적인 첫마디는 무언가!
나는 적잖이 당황했다.
육신이 아닌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의 설명...
그 개념이 너무나 낯설어서 어안이 빙빙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죄로 심판받아 멸망지 않을 것이며,
육의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열렬했었다.
성경의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다고?

내내 3인칭 화법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던 그의 말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는, 특히 그 말이

그를 만나봐야겠다는 결심을 한 지는
몇 주 되었다.
요 몇 달간 예루살렘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 사람.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합니다.”

진실이였다.
그들 쪽 지켜보아 온 우리의 결론이다.
그의 행보는 어느 선동가들과는
확연히 색깔이 달랐다.
나는 그가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을 하는지 궁금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쳐다본 자들이 살았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도
모두 보게끔 높이 달려야 합니다.”

이어서 그는 그 구리뱀을
하나님의 외아들과 연결하며
광야의 구리뱀은 장차 올
진짜 구원의 예표라고 선언했다.

갑자기
내 머릿속 수천 개의 성경 구절들이
봉 날아올라
작작 제자리를 찾아 내려앉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내내 귓전을 맴돈다.

출처 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un